

Nepal Mission News

# NewLight

2013, 2, 21 제 32호  
New Light Blind Nepal Center

Dobighat Lalitpur, Kathmandu Nepal  
977-9803665063, 977-1-5535546(np)  
070-4645-9863(kr) 972-360-7082(us)  
[krchlord@msn.com](mailto:krchlord@msn.com)

## NewLight

### 네팔 새빛아동의 집 새식구 Bandhana



네팔의 뉴라이트 블라인드 센터의 새빛 아동의 집에 새식구가 들어왔습니다

Bandhana Thapa

2월 18일 네팔 새빛 아동의 집에 들어올 새식구 Bandhana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카투만두의 북쪽인 네이즈 그레드라는 동리를 찾아갔습니다. 네팔은 지반이 없기에 대충 어디쯤인지에 가서는 물어 물어 찾아가야 합니다.

이사람 저사람 길거리에서 물어 물어 가는 도중에 . 도저히 차가 건널 수 없는 구름다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돌아서갈 길이 없는지 물었더니 이 좁은 다리로 차들이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다시 그 다리를 보고 있는 중에 반대쪽에서 차가 한대 오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미니 벤이 다리를 건너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너는 구름다리는 보았지만 자동차가 건너는 구름다리는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다리를 아슬아슬하게 건너 Bandhana집을 찾아 갔습니다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Bandhana Thapa

번더나의 집은 3층집 옥상에 있는 옥탑방이었습니다. 들어가는 너저분하고 집은 역시 방한칸에 침대와 주방도구가 같이 있고 문밖의 빨래줄이 옷장입니다



옥탑방입구와 방안에 있는 주방 가스렌지

우리가 방문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웃집 사람들과 건물 주인 아들이 와서 부러운듯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 아들은 옷도 메니커로 제법 잘입고 풍채도 달랐습니다. 번더나의 찢어진 옷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대조적인 주인집 아들의 옷과 번더나의 옷

### 새로 새빛 시각장애 아동의 집에 들어온 아동

이름 Bandhana Thapa

생일 2005-4-19

주소 Neij Gerd Bara-2, Kathmandu

시각장애 약시

아버지는 씨멘트 나르는 짐꾼으로 월수입은 6000루피 정도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2녀중 1녀

## 새빛 시각장애 아동의집 교육시작

네팔 새빛 아동의 집에서 시각장애아동의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사로는 Bimala Magar , Santa Tamang  
 Ram Bahadur Mukhiya, Jung Soo Suh  
 Worship & Pray 매일 30분  
 영어 점자, 네팔점자교육 주당 6시간  
 찬양및 노래배우기 주당 9시간  
 바이블 읽기및 스토리 6시간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3월까지 교육을 하게되고 4월부터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 학교시간과 형편에 따라 다시 스케줄을 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과 노래배우기를 통하여 시각장애아동 합창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9명의 입소가 마쳐지면 교육은 더욱 알차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아동 교육에는 많은 교재와 보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장만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교육을 받는 모습들

## 네팔 뉴라이트의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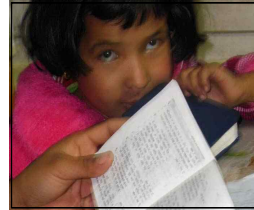
저녁7시부터 모이는 기도회의 모습들

아동들은 우리말 복음송을 네팔어로 음을 달아 부르고 우리는 네팔찬양을 우리 말로 음을 달아

함께 찬양하고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꾸마리가 얼마나 기도와 찬양을 잘하는지요.....



꾸마리를 데리고 치료받기위하여 병원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꾸마리와 이계숙 선교사입니다. 이계숙선교사의 따뜻한 사랑이 꾸마리가 백내장수술을 받고 조금씩 보게 되었습니다



X-Ray를 찍고 있는 꾸마리와 이를 지켜 보고 있는 Bimala선생님



안마교육을 열심히 받고있는 수련생들



## 편집후기

네팔의 뉴라이트는 오늘도 복음의 사랑을 담고 네팔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네팔에서 서정수선교사

